

출판N

2021.11 Vol.27

nzine.kpipa.or.kr

커버스토리 :

구매와 열독 사이, 책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탐구
사서 읽는 책, 사 두고 읽지 않는 책
공유시대, 책과 독서의 무한 변주
게임은 '현질'을 하면서 왜 책 구매에는 인색할까?

정책zoom인

출판 IP, 트랜스미디어를 만나다 - 2021 열린포럼
서울국제도서전 포스트스크립트 2021,
프리스크립트 2022

출판가 핫&쿨

불난 책방, 모두의 책방, 그림책방노란우산

인사이드

문피아와 밀리의 서재 인수전의 의미와 썬법
지역서점 불광문고는 무엇을 남겼나?
책 생태계 선구자 엄대섭 이야기

해외리포트

캐시 박 홍의 사소한 감정

Now
Next
News
Network

책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매체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하는 출판 전문 매거진



<출판N> 웹진
<http://nzine.kpipa.or.kr>



+ 커버스토리	<p>사서 읽는 책, 사 두고 읽지 않는 책 1 · 강창래(작가)</p> <p>공유시대, 책과 독서의 무한 변주 7 · 류지희(작가)</p> <p>게임은 '현질'을 하면서 왜 책 구매에는 인색할까? 12 · 강상준(대중문화 칼럼니스트)</p>
<hr/>	
+ 정책zoom인	<p>출판 IP, 트랜스미디어를 만나다 - 2021 열린포럼 17</p> <p>서울국제도서전 포스트스크립트 2021, 프리스크립트 2022 26 · 주일우(서울국제도서전 대표)</p>
<hr/>	
+ 출판가 핫&쿨	<p>불난 책방, 모두의 책방, 그림책방노란우산 31 · 이진(그림책방노란우산 대표)</p>
<hr/>	
+ 인사이트	<p>문피아와 밀리의 서재 인수전의 의미와 썬법 36 · 서찬휘(대중문화 칼럼니스트)</p> <p>지역서점 불광문고는 무엇을 남겼나? 42 · 장수련(전 불광문고 점장)</p> <p>책 생태계 선구자 엄대섭 이야기 48 · 이용남(한성대학교 명예교수)</p>
<hr/>	
+ 해외리포트	<p>캐시 박 흥의 사소한 감정 54 · 안성학(KPIPA 미국 코디네이터, 미국 파피펄 대표)</p>

발행인 신현수 편집인 박찬수 편집위원 김흥기, 류영호, 백창민, 이영미 발행일 2021년 11월 11일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대표전화 063-219-2700 E-mail nzine@kpipa.or.kr 홈페이지 www.kpipa.or.kr

기획/편집 정책연구통계센터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와 열독 사이, 책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탐구]

사서 읽는 책, 사 두고 읽지 않는 책

강창래(작가)

2021. 11.

“사 두고 읽지 않는 책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도 자꾸 사게 됩니다. 다 읽고 사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인문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강의하고 다독하는 작가로 알려진 뒤에 공개강의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들이다.

읽고 싶은 책은 사서 읽는다. 빌려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읽은 책은 서재 어디엔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언젠가 필요할 때 곧바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내 서재는 내 독서 이력이기도 하고 내 생각의 지도이기도 하다. 물론 읽으려고 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곧바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자주. 그러다 보면 쌓이게 되고, 읽지 않은 채 책장에 꽂혀 있기만 하는 책도 많다. 언젠가 읽긴 하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이 대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안다. 적어도 책 소개와 저자와 차례 정도는 읽고 그 책을 내 서재 어디쯤에 두어야 하는지 알고 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책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집안을 둘러보라.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당장 필요해서 샀던 것은 아니다. 언젠가 쓰일 것 같아서 산 것이 많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옷이나 음식 재료도 그렇지 않은가. 냉장고에는 오래된 먹을거리가, 찬장에는 건어물이나 통조림, 오래된 라면이나 국수도 있을 것이다. 냉동실 구석에는 아마 무엇인지도 모를 ‘얼음 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옷장에는 일 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이 몇 벌은 걸려 있으리라. 이걸 고대 이집트의 일상생활 기록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옷장에 옷이 많지만 ‘입을 옷은 없다’.

먹으려고 샀지만, 입으려고 샀지만, 사용하려고 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할 기회가 미뤄진 것들이

다. 결국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지 모른다. 어느 집안이나 그런 물건들이 꽤 많다. 이사할 때 다들 절실하게 느낀다.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낫선 물건들이 끝없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산 책을 당장 읽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할 건 조금도 없다. 사 두었지만 언제 읽을지 모르다거나 사 두고 끝내 읽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책이 쌓여 있다고 해도 책을 좋아한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언젠가 읽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부듯한 기대감도 느낄 수 있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책은 매우 아름다운 장식이 되기도 한다. 책의 용도는 읽는 것이 전부다 아니다. 벽돌 책은 목침이나 방어용 무기로도 쓸 수 있다. 종이나 칼로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은 상징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필수품이다. 주변에 읽지 않은 책들이 적으면 불안하다. 언젠가 마음이 동해서 읽고 싶은데 그 책이 없거나 절판되어 구할 수 없으면 절망스럽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혹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 누구도 평생 책을 한 권도 사지 않았다거나 한 권도 보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때는 자주 사야 했고 자주 읽어야 했을 것이다. 날마다 책을 펼치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한때는 필수품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 번 필수품이 영원한 필수품인 것은 아니다. 상황이 변하면 부수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책이 그렇다고 해서 이상할 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해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얻고, 그런 과정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책이 필수품 목록에서 빠질 리 없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매체보다 책을 통하는 것이 최선이다. 세상이 잘 변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지난날의 지식으로도 '아직 그대로인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된다.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더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주로 인문학을 주제로 글을 쓰거나 강의할 뿐 아니라 수필을 쓰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독서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저 재미로만 읽는 것 같은 소설도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가끔 독서나 문학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할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독서자들은 어떤 책을 읽는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좋아하는 주제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책'이거나 '당장 부닥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일 것이다. 앞것은 즐거움 때문이고 뒤것은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독자가 가진 궁금증에 대해 곧바로 답해주는 책은 드물다.

게다가 한 권의 책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어떤 책이든 그 내용은 저자의 편견

이기 때문이다. 매우 감동적이고, 공감될수록 더 그렇다. 그 내용은 독자가 가진 고정관념을 잘 설명한 것일 확률이 높다. 그럴 때는 이런 경구를 떠올려 보아야 한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책 읽기를 즐기는 독자들은 절대로 ‘한 권만 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한 권’이란 물리적인 단위로서 ‘한 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저자의 책만, 좋아하는 종류의 책만 읽는 것도 ‘한 권’의 효과를 낸다. 그런 경우 책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꼭 싫어하는 저자나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도 읽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경우, 매우 공감되고 감동적인 책이라면 적어도 네댓 번은 읽는다. 정말 좋아하게 되면 수십 번 읽는다. 비판적인 독서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월터 옹)이다.

여러 번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묻는다. 정독하는 것이 좋은지, 다독하는 것이 좋은지. 마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책은 이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고 그 수도 많다. 다 볼 수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 비슷하다. 만나는 사람 모두 깊고 중요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일 수도 있고, 여러 번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주 만나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만남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독하지 않고 정독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경우든 비교되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비교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다. 다독의 경험이 의미 있는 정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역시 한 권의 책을 읽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양하고 많은 정독 경험이 매우 특별한 정독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해 준다.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매우 특별한 정독의 경험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독하다 보면 저절로 정독할 책을 만나게 된다. 정독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매우 특별한 정독의 대상을 만나게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그렇게 만났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와 무협소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그리고 문학비평 책들을 거쳐 사회과학 분야를 꽤 넓고 깊게 섭렵한 뒤였다. 다독의 경험이 풍부했던 것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다독하면서 궁금해 했던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런 만큼 텍스트는 조금 어려웠다. 일단 한 번 통독한 다음 다시 되풀이해서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새기며, 검증하며 읽었다. 책에서 언급된 다른 책들을 찾아 읽고, 그에 대한 ‘다른 평가’들까지 챙겨 본 다음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 ‘비판적으로 읽었다’. 그 과정에서 질문이 떠오르면 기록해 두었다. 그에 대한 답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책이 있으면 모두 사 두었다. 곧바로 읽기도 했지만 그러지 못하면 언젠가 읽게 되리라 믿었다.

필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매우 특별하게 정독한 책이 여러 권 있다. 그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비극을 다시 꼼꼼하게 읽었고, 19세기 이후, 그리고 현대 문학을 섭렵했으며 근현대 철학까지 독파했다. 근현대 철학의 경우 한 권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권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다독과 정독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통섭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진

지한 독서는 더 많은 책을 읽게 만든다.

그냥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삶은 단순하지 않다. 의식주 모든 것에 걸쳐 있고, 현대의 삶은 다양한 '네트워킹'의 결과이다. 그 네트워킹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원인이면서 결과이다. 웬만큼이라도 잘 이해한 다음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삶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지식은 끊임없이 변한다. 늘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책 한 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책 읽기를 좋아했다. 운이 좋았던 셈이다. 어린 시절에는 책읽기가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가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케 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책 읽기를 즐기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금은 2만 권쯤의 책을 가지고 있다. 집의 벽은 거의 전체가 책꽂이로 뒤덮여 있다. 방문한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 이 많은 책을 다 보았느냐고. 대개는 웃음으로 답한다. 굳이 말해야 한다면, 다 본 것이기도 하고 보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네댓 번 읽으며 정독한 책도 많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다 기억하지 못 하지만, 정독하면서 참고자료로 뒤적인 책은 더 많다. 잠깐 보았기 때문에 역시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 읽지도 않고 꽂아 두고 잊어버린 책도 많을 것이다. 드물지만 같은 책이 두 권이나 세 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보고 싶을 때, 필요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는 한국문학에 대한 글을 쓰면서 '오래된 문학전집' 가운데 한 권을 찾아보았다. 35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다. 편집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네댓 번은 읽었던 것이다. 거의 사십 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면서 두세 번 정도 꺼내 보았을 것이다. 지금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책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면 그 어디에도 없다. 내가 사 두는 책들 가운데에는 그런 것이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48년에 출간된 『근원수필(近園隨筆)』이다. 30년 전쯤에 우연히 헌책방에서 구한 것인데, 꽤 비싼 값을 치렀다. 한국문학에 대해 글을 쓰면서 초판을 구해 보던 때였다. 이걸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없을지 모른다.

최근에는 7년쯤 전에 사둔 책을 읽고 있다. 크고 두꺼운 미술책이다. 크기는 대충 23cm×29cm이고 1,240쪽 분량인데 두꺼운 종이에 컬러 인쇄를 했기 때문에 책 두께가 6cm 정도 되고 무게는 4kg이나 된다. 책값도 30만 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대는 이미지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길거리의 풍경이나 TV 드라마, 영화가 그런 것이다. 그 이미지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읽는 책은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이다. 그러나 이 책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서양미술사』는 1951년에 출간된 책이다. 그동안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전에 쓰인 책이다.

새로이 구한 미술사 책은 『Art History』(Marilyn Stokstad, Pearson Education)이고, 전 세계의 미술사를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한국어판은 없다). 대학이나 대학원 교재로 쓰이는 것인데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다. 2008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2016년에 6번째 개정판이 나온 최신간이었다. 처

음 구했을 때는 차례와 서문만 읽고 꽂아 놓았다. 2년쯤 지난 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읽었다. 그러고는 다시 책장을 장식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이 책을 자주 본다. 최근에 미술사를 주제로 격주간지에 연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저작물의 종이책을 구할 수가 없다(헌책은 있지만). 현재 미국 지역에 한해서 '대여'만 하고 있다.

책은 사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해'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다 읽지 않은 책들이 모인 서재는 세월과 함께 나만의 도서관이 된다. 그곳에는 당연히 도서관의 천사가 살고 있다. 책장을 거닐며 책을 찾을 때 그것과 함께 어떤 책을 더 읽으면 좋을지 안내해 준다. 사서 읽었지만 오래 전이라 잊어버린 책, 샀지만 읽지 않은 책이 그 순간 빛을 발한다.

세 번째 질문에도 짧게 의견을 표명하고 싶다. 나는 책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나 비디오를 구할 때에도 언제나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책을 위한 비용 지불이 게임이나 비디오에 비하면 일고여덟 배는 되겠지만. 그럴 만큼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도 책을 많이 산 건 마찬가지였다. 책을 좋아했고, 꼭 **필요했으므로** 배고픔을 참고 책을 사 보았다. 먹기보다 읽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당시에 게임이나 영화를 좋아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의식주를 제외하면 책을 사는 데 돈을 가장 많이 쓴다.

사회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행동양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미래사회가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책을 사는 데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서는 다른 매체와 달리 반자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고정관념과 보수적인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를 즐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게임이나 비디오, 또는 그 비슷한 것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라 편하기 때문이다. 그 점은 관객 스포츠와 플레이어 스포츠의 관계와 비슷하다. 직접 행동해 보면 저절로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이 생긴다.

독서 과정은 플레이어 스포츠 같은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비판적인 독서'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지금 현재 시스템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완전해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다. 어떻게 그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이든 유지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적응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보수적이고 적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강창래(작가)

인문학 전문 작가로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책의 정신』(2013)으로 한국출판평론상 대상을 수상했다. 주로 대학특강과 도서관 특강 형식으로, 20년 넘게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베스트셀러로는 『인문학으로 광고하다』가 있고, 수필집으로는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가 있다. 이 수필집은 영화로, 드라마로, 웹툰으로 제작되고 있다. 2022년에는 독자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adacopy@naver.com

<https://www.facebook.com/badacopy/>

[구매와 열독 사이, 책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탐구] 공유시대, 책과 독서의 무한 변주

류지희(작가)

2021. 11.

현대인들은 일 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을까?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날처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책이란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지난해 2020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율은 52.1%로 약 6.1권의 독서량으로 집계되었다. 겨우 절반이 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년 전 데이터에 비해 더욱이 7.8% 정도가 줄어든 수치이다. 더구나 해가 거듭될수록 종이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되어버린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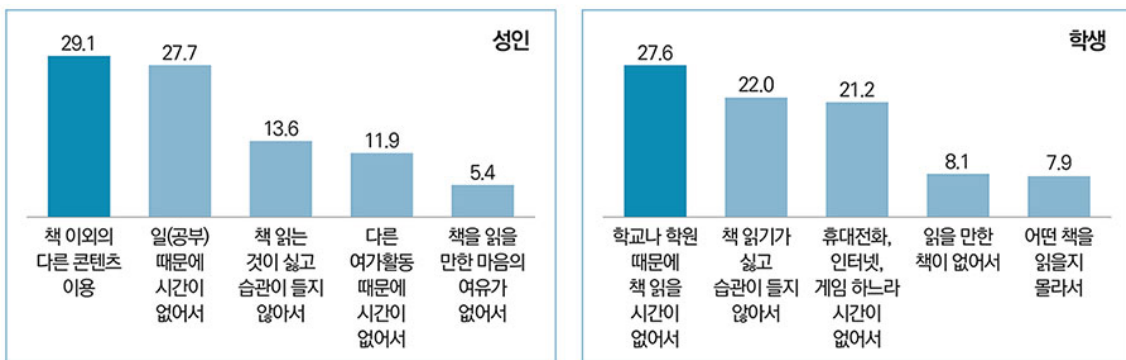
국민들의 평균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많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예상컨대, 아마도 책 대신 다른 콘텐츠들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디어 매체의 다양성이 확장되면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책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깐 동안 갖게 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마냥 힐링되거나 마냥 다이내믹한 활동이 아닌, 몸은 편안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다채롭고 흥미롭게 보내고 싶은 게 현대인들의 심리이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은 시각 정보에 그치지 않고 눈과 귀, 시청각적 자극을 보다 입체적으로 느끼며 정서적 만족감을 함께 충족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잔잔하게 종이 낱장을 넘겨가며 곱씹는 독서 시간보다는 미디어 속 세상을 통해 편안하면서도 다채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민감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자주 찾게 되는 것이다.



전자책 독서 모습

이 때문인지 종이책의 수요는 줄었지만 그에 반해 성인 연령층의 전자책 독서율은 16.5%로, 20대~30대를 중심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웹툰에 힘입어 웹소설 시장이 커지면서 전자책의 마니아층이 탄탄히 확보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간편하게 전자책을 다운받아 휴대하며, 언제 어디서든 틈틈이 볼 수 있다. 음성 기반의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같은 새로운 독서 방법들도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취미이자 문화가 되고 있다. 그런 반면 텍스트로 읽는 책이 아닌, 듣는 방식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서 글자를 잘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난독증을 갖게 되는 현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비단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편리한 장점에 가려진 미디어 시대의 안타까운 이면이다.



독서 장애 요인(성인, 학생) (단위: %)
통계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성세대들에게 “책”이란 종이로 만들어져 눈으로 보고 만지는 유형의 것이라면, 지금의 MZ세대들에게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책도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화된 형태여도 정보와 지혜를 얻고 영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본질은 책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더욱이 책 한 권이 출간되기까지의 프로세스가 역으로 바뀐 시대다.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유명 작가가 TV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아 노출되는 방식에서 이제는 잘나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책 출간 제의를 받아 작가가 되는 시대이니까 말이다. 다시 말해, 좋은 책이 많이 팔리기보다는 인기 많고 유명한 사람이 책을 쓰면 팔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프로세스의 개념이 뒤집혔다.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며 이를 어떻게 구워삶아 조리하는지에 따라 트렌디이자 문화가 형성된다.

종이책을 읽으며 책갈피를 꽂아 표시하는 대신 유튜브에서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구독 버튼을 누르고, 시의 감성이 고플 땐 인스타그램의 젊은 작가들이 올리는 짧은 감성 글귀에 공감하며 좋아요를 누른다. 댓글을 통해 작가와 직접 소통을 나누고,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독자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영위하는 취미활동에서 이제는 품앗이처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유 커뮤니티”의 향유 문화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공유시대를 살아가면서 독서라는 매체도 영역의 한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변모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음성 기반의 채팅 플랫폼 ‘클럽하우스’나 ‘이프랜드’와 같은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 플랫폼 공간으로 인해 독서의 품앗이 문화도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는 듯하다. 오프라인에서 종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독서모임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책이라는 매체의 역할을 충만하게 다룰 수 있다. 예전의 독서가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넓이를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프랜드 독서모임

필자 역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종이책의 수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독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과의 접근성을 직간접적으로 더욱 확장하는 의미이기도 하여 기분 좋은 설렘과 기대감이 생기기도 한다.

자기계발 에세이 『어른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를 집필하고 출간하는 과정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출간 소식을 알리고 서평 이벤트를 열었다. 그리고 라이브방송을 통해 독자들과 책의 내용을 주제로 소통을 나누고 고민 상담까지 진행하였다. 책이라는 정보 매체가 공유 플랫폼을 만나 여러 면에서 더욱 다채로워진 것이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책을 낭독해주는 유튜버의 영상은 때로는 눈이 아닌 귀로 듣는 책으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다. 머릿속으로 내용을 그리며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호기심과 관심이 종이책의 구입으로 연결되는 촉매제 역할이 되기도 한다. 하물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갓길에 피로한 눈을 꼭 감고 들을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의 음성들, 잠들기 전 10분 동안 책을 읽어주는 유튜버의 음성을 자장가 삼아 잠이 들 수 있는 것도 책이라는 매체 특유의 안락함과 서정적인 면모를 대면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과거에는 책이나 신문, 뉴스와 같은 제한적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지금은 쌍방향의 정보 교류의 장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수직적으로 책 속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종이책을 얼마나 구매하고 한 달에 얼마만큼 읽느냐에 대한 지표에 집착하는 것은 어찌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의 시대는 책을 읽기 위해 구매하는 시대라기보다 개인적 취향의 소장용 혹은 함께 공감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유 아이템으로써 활용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 역시 예전이라면 개인적 취향의 소장용 책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 독자들, 작가들과 소통할 만한 소재가 있는 책인지에 따라 구매 기준을 두기도 한다.



개인의 취향에 맞춘 감성 서점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 보자. 책은 사치품일까? 기호품일까? 필수품일까? 책 구매율과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필자는 책이라는 유형의 매체에 한계 짓기보다는 “독서 문화”라는 넓은 개념으로 책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독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입장에서 책을 대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한

권의 책을 읽든, 한 줄의 글을 읽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감으로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아닐까. 독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때, 지적 희열감과 동기 부여, 실천하는 행동력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책이라는 콘텐츠를 개인으로서, 다수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맛보고 즐기고 나누면서 “독서 문화를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두껍고 유명한 책을 많이 읽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북튜브의 책이든, 만화책이든, 일러스트북이든, 부동산 재테크 책이든 쉽게 읽히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구매를 하여 소장하든, 공유를 하든, 활용을 다할 수 있는 책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기호품이자 필수품으로써의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류지희(작가)

『어른이 처음이도 괜찮습니다』 자기계발 에세이를 집필하며 SNS상에서 10대~30대 연령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교보문고 북살롱 등 각종 독서모임을 운영하는 북호스트이며, 《영남일보》, 《대구신문》 등에서 디자인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작가이다.

또한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대표로, 디자인브랜딩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한다. 최근 주요 관심 분야는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지적재산저작권, 디자인브랜딩, 마케팅 전략, 트렌드 변화 등이다.

www.instagram.com/author.ryu_lovenlife

flyhighup1016@naver.com

[구매와 열독 사이, 책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탐구] 게임은 ‘현질’을 하면서 왜 책 구매에는 인색할까?

강상준(대중문화 칼럼니스트)

2021. 11.

고작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가공의 게임 아이템 하나가 현금 몇 억 원을 호가한다는 게 더 이상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은 요즘이다. 물론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책을 사는 데 쓰는 돈과 비교한다면 더더욱 별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하다. 비록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 같은 ‘게임 현질’과 달리 ‘책 현질’에 어디 억 소리가 가당키나 한가. 막연한 심정적 격차는 액수가 아닌 구매 빈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가온다. 게임 현질보다 책을 구매하는 일은 이상하게도 좀처럼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니까. 설마 게임 현질과 달리 책 현질은 늘 남몰래 조용히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알다시피 ‘현질’이란, 현금(現金)의 ‘현’에 접미사 ‘질’을 합친 조어다. 본디 게임에서 유래한 용어지만 요즘엔 마치 ‘소비’보다 조금 더 ‘힙’한 단어 정도로 취급되며 꽤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듯한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현질의 ‘질’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란 일차원적인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많은 듯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실은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질’을 뜻하는 게 맞다.

이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 상품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개념에서 탈피해 점차 게임 내에서 유저의 과금을 유도하거나 현실의 재화를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한 데서 기인한다. 애초에 ‘현질’의 목적은 게임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달랐다. 현질은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 다른 유저보다 빠르게 성장하거나 우수한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방책으로, 소위 게임 실력을 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자연히 이를 고깝게 여긴 대다수 게이머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경멸하며 낮잡아 이르렀으니, 그래서 현‘질’이다. 그러나 현질은 오래지 않아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으면서 본래 의미가 휘발된 채 현재의 보편적인 의미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게임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도 비겁한 일도 아닌 것으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게임에 돈을 쓰는 행위 또한 일반화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고작 상향평준화를 위한 소비에 불과하지만, 경쟁이란 이름의 마법은 이 모두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다.

게임에는 당연하다는 듯 현질을 하는 반면 책을 구매하는 데에는 더없이 인색한 이유는 우선 이 ‘경쟁’

이란 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게임 현질이 처음부터 경쟁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소비인 데 반해, 책을 사는 행위는 경쟁과는 거의 무관하다.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어떤 소비보다 가장 경쟁과 멀다고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책을 경쟁적으로 팔기는 하나 경쟁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책을 통해 쌓아올린 지식이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책을 구매하는 양으로 이를 가늠하지는 않는다. 희귀본 같은 것이 경제적으로 고평가받으며 경쟁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는 있으나 이는 독서 행위를 전제한 일반적인 책 구매로는 볼 수 없다. 즉, 책은 게임에 비한다면 태생부터 완전무결한 비경쟁 분야에 속한다.

게다가 책의 생산자는 이런 소비자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다. 한국에서 책은 늘 다른 매체와 경쟁해야만 했다. 영상이 대세가 되면 영상과, 웹이 등장했을 때는 웹과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책 뿐만 아니라 웹이 대세가 되면서 웹과 경쟁하려 했던 당시 레거시 미디어들의 움직임은 이를 방증하기 충분하다. 다른 문화 콘텐츠에 비해 유독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책 구매의 패착 요인은 여기에도 있다.

책을 비롯해 신문과 잡지마저도 과거 웹의 공세와 맞닥뜨렸을 때 웹과 적극적으로 경쟁을 펼쳤다. 뉴미디어를 의식한 기존 텍스트 미디어의 과도기는 모두 웹을 '경쟁재'로 전제한 데서 시작한다. 무료로 가까웠던 웹 매체와 차별화를 꾀하며 병존을 택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생산자도 책을 완전히 대체할 것 같은 웹 콘텐츠에 한껏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웹과 경쟁하면서 책은 단지 유료라는 이유로 더더욱 차선으로, 차차선으로 밀려나기에 이르렀다. 웹툰이 무료 구독을 유지하다 유료로 전환하면서 독자들의 반발을 산 것과도 엇비슷하다. 그에 비해 오늘날 웹소설 독자들은 유료 구독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유는 딱 하나, 웹소설은 웹툰과 달리 처음부터 유료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책 역시 웹의 엄청난 속도와 낮은 장벽, 가벼운 콘텐츠에 동화되거나 따라잡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웹 콘텐츠와 동시에 함께 즐기는 것으로 노선을 다잡지 않은 까닭에 외려 소비자를 빼앗겼다. 한때 수많은 잡지가 일제히 몰락한 것을 단지 시대의 변화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듯한 태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독서는 직관적인 영상과 달리 습관의 산물이다. 매년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들 '시간이 없어서'가 '아예 관심이 없어서'를 넘어선 통계를 얻긴 힘들다. 즉, 육아나 취업 등 환경적 요인으로 독서와 멀어진 '자발적 비독자'보다 독서에 대한 긍정적 체험을 해보지 못해 스스로 독서와 멀어진 '자발적 비독자'의 수가 훨씬 많다. 특히 자발적 비독자 중에는 유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가 대다수다. 당연히 출판 시장은 늘 이 자발적 비독자를 새로운 시장으로 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이 숫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주요 구매층의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더더군다나 경쟁해야 할 매체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책을 사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인식 역시 구매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을 최악시하는 강박은 사실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자면 굉장히 독특한 사고라 할 만하다. 물론 실제로는 책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일수록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이 더 많다. 결국 언젠가 읽을 책이라며 완독에 구매받지 않는 감각에 더 익숙한 탓이다. 일례로 『사피엔스』, 『정의란 무엇인가』, 『총, 균, 쇠』 등

은 구매자의 완독률과는 무관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다. 결국 책의 주요 고객층이 책을 구매하고 읽지 않는다는 뜻이니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이 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두껍고 어려운 인문학 저서는 이를 해설하는 강연이나 관련 영상으로 읽은 셈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책 역시 '선매후공', 즉 일단 사고 고민은 나중에 하라는 식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기반에 둔 전략을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출판 시장은 그보다는 아예 새로운 전략을 세웠으니, '커피 두 잔 가격에 무제한 독서'라는 카피 그대로 정액제 독서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이다. 마치 OTT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처럼 한 달이라는 기간을 기본 단위로 삼아 수십만 권의 책을 한번에 공급하는 식으로 책 구매 방식을 근본부터 뒤엎었다.

실제로 한 달 구독 가격은 대부분 책 한 권 값에도 미치지 않아 관련 서비스의 구독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일단 첫 달은 무료라니 진입 장벽도 낮다. 출퇴근 시간까지 옹골차게 활용하시라고 오디오북까지 추가했다. 그럼에도 각각의 독서 플랫폼들의 구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판 시장 또한 더불어 확대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읽고 싶은 책을 '무제한 독서'한다기 보다는 실은 읽지 않을 책을 구매하지 않는 방향에 더 가까운 탓이다. 대개 극장 개봉 후 VOD로 서비스하는 영화의 부가 시장과 비교하기도 쉽지 않은 까닭이다. 조금 더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그보다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몫을 줄이고 헐값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전자책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 플랫폼이 책이 지닌 물성을 무형의 것으로 치환한 데도 책 구매의 원천적인 장벽을 확인할 수 있다. 책을 사는 것의 부가적인 효과로 종종 농담 반 진담 반, 인테리어 효과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 실제로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희열은 비단 소유자만의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도 눈요깃거리 그 이상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취향을 전시하는 데 있어 책만 한 것도 없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서재에 맨 어디서 받아온 책들밖에 없다며 깎아내리던 것만 상기해 봐도 금세 알 수 있다. 인테리어가 구매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도 읽은 책이든 읽을 책이든 보관하는 순간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셈이다.

반면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거대한 종이 덩어리가 쓸데없이 생활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우선 부동산을 확보한 다음 책을 구매하겠다는 젊은 독자층의 이야기는 결코 낯설지 않다. 아예 책을 구매하지 않고 오로지 도서관 대출만 이용하는 이유로도 종종 거론된다. 전자책은 이를 대체하는 좋은 수단이며, 중고 서점 또한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준다. 특히 중고 서점의 경우 출간 시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기에 독서를 중용하기도 한다니, 책 구매에 필요한 부담은 줄이면서 소유하지 않고 읽는 방법으로는 더없이 합리적이기까지 하다. 결론적으로 책이 가진 물성이 때때로 구매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얼마든지 있다. 게임처럼 가볍게 사서 가볍게 즐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또한 다양화하고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책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제도가 구매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부터가 여전히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제도가 바로 도서정가제인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지

금까지도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근본 취지는 거대 온라인 서점과 경쟁하기 어려운 동네 서점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공급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무관히 소비자 입장에서선 관스레 책값만 올린 것으로 보일 법하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된 후부터는 많이 산다고 할인되지도 않고, 서점이 자율적으로 책 가격을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다. 출간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정해 다시 정가를 매길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도서정가제가 동네 서점 살리기에 얼마나 일조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실제로 주변에 서점이 전무한 동네에 사는 탓에 한 달에 두세 번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는데, 그 주기는 장바구니에 5만 원어치 책이 채워질 때마다다. 이유는 5만 원 이상 구입 시 지급되는 2천 원짜리 포인트 때문이다. 미미한 액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선 딱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반면 동네 서점은 이 작은 차이조차 메우기 힘들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제로베이스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근원부터 허점을 지닌 셈이다. 더불어 출판사 역시 얼마 없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닌가 싶을 만큼 물가를 핑계 삼아 계속해서 책값을 올리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가끔은 왜 이런 책까지 양장본으로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책값을 보면 금세 납득이 가니 말이다.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상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 콘텐츠는 더 그렇고, 책은 더더욱 그렇다. 책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면 소비가 한 사람의 개성을 대변한다는 점이 더욱 드러난다. 여기엔 책 가격에 대한 다양한 감각도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장벽은 결국 책을 읽지 않는 풍조에서 찾는 게 옳을 것이다. 일례로, 글쓰기 주제로 강연할 때마다 식상하게도 ‘다독’을 강조하고야 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반드시 맞닥뜨리는 질문이 있으니 바로 책을 읽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글쓰기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반문이다. 경험과 정보로 단단히 무장한 저자가 쓰고 숙련된 편집자의 손을 거친 책을, 그것도 많이 읽지 않고선 좋은 글을 쓸 수 없을 거란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면 누군가에게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책을 구매하는 것은 더더욱 아득한 일처럼 느껴질 법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독서의 필요성보다는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강화하거나 강제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책을 읽는 즐거움보다는 사는 즐거움을 먼저 느끼는 것도 나쁠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러다보면 게임처럼 손쉽게 현실하고, 음악처럼 늘 곁에 두고, 드라마처럼 번질나게 보고, 마침내 영화처럼 스스로 나서서 감동과 재미를 찾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강상준(대중문화 칼럼니스트)

〈DVD2.0〉, 〈FILM2.0〉, 〈iMBC〉, 〈BRUT〉 등의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화, 만화, 장르소설,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글을 쓰며 먹고살았다. 『위대한 망가』, 『빨간 맛 B컬처』 시리즈를 썼고, 『웹소설 작가 입문』, 『매거진 컬처』, 『젊은 목수들』을 공저했으며, 『공포영화 서바이벌 핸드북』을 번역했고, 대중문화서 '에이플랫' 시리즈를 비롯해 『좀비사전』, 『탐정사전』을 기획, 편집했다.

parandice@naver.com

출판 IP, 트랜스미디어를 만나다

2021 열린포럼

2021.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12일 ‘출판 IP¹⁾, 트랜스미디어²⁾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출판이 타 분야의 미디어 산업과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출판 IP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여 출판산업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최사를 맡은 박찬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은 “이번 포럼은 앞으로의 출판 IP 범위 확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출판계가 나아가야 할 혁신전략과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포럼의 의의를 전했다. 또, “이번 포럼으로 트랜스미디어와 출판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미래산업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오가기를 기대한다”며 “출판과 트랜스미디어 전문가들이 깊은 통찰력으로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출판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 줄 것”이라고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기조강연] 트랜스미디어가 소환한 출판

박기수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기조강연은 ‘트랜스미디어가 소환한 출판’을 주제로 박기수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정의하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구성 시 고려 사항을 전했다. 이어서 플랫폼, 팬덤, 구독경제에 핵심 콘텐츠인 IP를 더한 네 개의 키워드로 콘텐츠 생태계의 변화와 콘텐츠 IP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을 강의했다.

박 교수는 최근 카카오의 IP 기반 조형적 가로지르기 행보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통해 원천 IP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었는데, 이는 모든 웹툰과 웹소설이 출판 IP에 초점을 두고 있어, 출판 IP가 원천콘텐츠로서 IP 비즈니스의 출발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원천 IP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출판이 하고, 이외 업무는 협업을 통해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적

1)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권.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2) 트랜스미디어: 트랜스(trans)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미디어 간의 경계선을 넘어 서로 결합·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원천콘텐츠 발굴 및 개발의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해짐에 따라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지속적인 탐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 이슈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 독점에 따른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짚었다.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의 창작자와 독자 모두에게 효익 창출을 통한 수익 설계가 필요하며,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IP 핵심 구성 요소로 파악한 출판 IP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형성, 연계성, 확장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출판 IP가 활성화된다고, “해리포터”를 예로 들어 트랜스미디어 거시 서사의 선형성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웹툰과 웹소설을 출판 IP로 보아야 하며, 웹툰 IP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출판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나 혼자만 레벨업”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이야기하며 웹툰과 웹소설의 시너지 효과를 전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웹소설/웹툰 IP를 통해 출판 IP 개발의 성공모델을 예로, 양면시장으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구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열린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기수 교수

Q. 출판 이외의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은 출판계와 함께 콘텐츠산업을 뛰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출판계의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열어놓고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가 어느 날 유니버스라는 팬덤 플랫폼을 구축했고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는 기획사입니다. 그런데 하이브

에서 AR/VR 산업도 합니다. 어떤 기업도 콘텐츠와 출판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협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득이 올지, 우리의 시장을 넓힐 수 있을지, IP 확보가 원활할 수 있을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콘텐츠가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Q. 출판사에서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타 미디어와의 결합을 주도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이 부분은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합니다. 헤게모니를 출판 IP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확장'입니다. 이에 대한 노하우는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도 받으시고 다른 콘텐츠 성공모델들을 학습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이 채 되지 않은 웹툰은 처음 시작될 때 포털 사이트의 미끼상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되어 분사가 되고, 어엿한 하나의 비즈니스장을 열었습니다.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열어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데 한국의 웹툰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분야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학습하고 출판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출판 업계가 헤게모니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Q. 출판이 타 미디어 산업과 잘 융합되기 위해 기존의 출판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부분과 타 미디어와 융합 시 출판물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원천 IP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출판사가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플랫폼까지 출판사가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두 번째는 책에 국한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디오북과 전자책은 책과 별개의 시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장으로서 연계해서 상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종이책으로 보다가 끝나는 부분을 오디오북으로 연결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계속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오디오북만을 듣고는 온전한 체험이 안 돼서 그 책을 삽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밑줄을 치면서 읽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책만 읽을 때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두 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상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물에 대한 욕심과 경험을 위계하는 입장에서는 고급스러운 책 몇 권 정도만 필요합니다. 책에서 필요한 건 물성도 있지만 책에서 얻고자 하는 IP 자체입니다.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디어 출판 쪽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계속 책이라는 물성을 제작하는 업자로 남을지는 여러분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출판사 환경에 최적화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발제1] 출판 IP와 게임의 컨버전스

서성은 한경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성은 한경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출판 IP와 게임의 컨버전스’에 대해 강의했다. 서 교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정의와 혼동되어 쓰이는 단어들의 개념을 설명했다. 먼저 크로스미디어의 개념을 전하고 이에 대해 크로스미디어는 효율적이기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크로스미디어와 트랜스미디어를 같은 개념으로 놓고 다른 방법론을 인지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서 교수는 각색부터 트랜스미디어까지 전환되는 유형을 반복, 압축, 연장, 확장, 전위, 수정, 인용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미생”과 “치즈인더트랩”을 예로 들어 각색과 팬덤의 관계를 밝혔다.

이어서 출판 IP와 게임의 컨버전스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체험을 통해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처럼 만화가 원작이지만 원작이 실종된 경우가 많았으며, “드래곤 라자”, “룬의 아이들”도 원작은 성공했으나 게임으로 전환되었을 때 배경과 세계관만 사용하거나 캐릭터만 가져다 쓴 경우에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인쇄매체 양식의 서사를 비선형적인 사용자 참여에서 일어나는 인터랙티브한 서사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웹툰과 게임의 트랜스미디어적 컨버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위쳐3: 와일드 헌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작가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편집자가 매체 활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면, 인쇄 출판의 경우 만질 수 있는 즐거움을 럭셔리 아이템 명품 전략으로 구사해야 하는 등 지금은 텍스트만 에디팅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에디팅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 중인 서성은 교수

Q. 출판사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도서 출판이 메타버

스와 연결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3D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은 아니지만 한솔교육의 재미나라가 좋은 프로토타입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2010년 사이에 1차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가상세계와 관련된 좋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재미나라에 이종구조 놀이와 학습이라는 두 가지 공간을 육성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대한 좋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2D 기반이었지만 디즈니가 만든 어린이 메타버스 '클럽펍'은 실험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학습 콘텐츠를 만든 시공미디어는 AR/VR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다면 이런 선도적인 기업들에서 어린이 대상 가상세계가 출판 IP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스토리가 게임의 서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관련 연구자들이 평생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게임성과 스토리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돌로지, 내려톨로지 게임이 놀이인지 서사매체인지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요. 그걸 굳이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게임이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스토리가 기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다산성의 많은 스토리 갈래를 양산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가 필요하며, 플롯은 다회차 플레이가 가능한 다변수적 서사가, 캐릭터는 몰입감 있고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 캐릭터가 게임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제2] 출판 IP의 화수분, 웹툰/웹소설

이용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두 번째로 이용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이자 텍스트릿 팀장이 '출판 IP의 화수분, 웹툰/웹소설'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먼저 이 교수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게임판타지 소설을 소개하며 게임판타지 장르는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화되는 부분에서도 게임시스템의 코드와 요소들만 따와 다양한 변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슷한 작품들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독자들의 반응을 웹툰 "나 혼자 만렙 뉴비"에 달린 댓글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는 웹툰, 서사 자체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웹소설을 웹툰화하는 과정에서 웹소설에서 이루어지는 장르적 양상을 웹툰화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와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웹소설에 대한 수많은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존의 인쇄매체에서 사용되던 문학의 평가 방식과 서사 자체를 매체에서 분리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웹소설을 인식 및 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웹소설은 무엇이며 왜 웹툰화되고 있는지, 특징을 확장해서 매체와 관련된 리더십 부분까지 근본적인 이해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서사로 진입한 디지털, 기계적 창작과 속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들어 웹소설을 설명했다. 끝으로 웹소설이 서사와 스토리텔링의 구현

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욕망이 움직이는 감각과 구조가 구현된 것임을 인식하고 어떻게 웹툰화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고민의 실마리를 찾을 때 IP 전환에서 웹툰/웹소설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탄탄히 다져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희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Q. 과거에도 소설과 웹툰이 2차 창작(미디어화)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현재에 들어서 더 각광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라고 해도 웹소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네이버 공모전을 통해 그 명칭이 확정되었으니 사실상 10년이 되지 않은 산업이죠. 그렇다 보니 좋은 양질의 작품들이 누적되고 또 웹소설에 대한 인식이나 웹소설 그다음의 너머를 상상할 수 있게 된 동력을 갖춘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동력들이 다 갖춰진 지금이 기존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폭발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산업들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화제인데, 웹툰/웹소설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웹툰/웹소설 시장에서 달라진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원론적인 대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이고 결국에는 잘 만들어진 콘텐츠겠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웹소설에서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어떻게 재생산하느냐, 어떤 식으로 각색하고 새로운 미디어와 구독 플랫폼에 맞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중간 과정 매개자들의 고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심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제2의 <오징어 게임>이나 제2의 <D.P.> 같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웹툰/웹소설 시장에서 달라진 트렌드라고 할 때, 웹소설 시장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트렌드 유행 공식들을 따라가는 것이 창작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장르 같은 것들을 해체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어떤 시류들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스타워즈”도 어떤 장르인지에 대한 싸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외계인이 나오고 로맨스가 섞여 있고 마법을 쓰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 그것들을 해시태그를 통해서 #SF, #판타지, #로맨스로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장르들이 혼합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처럼 장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찍어 내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컨벤션 같은 경우도 열게 보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데스 게임의 장르라고 하면서 이 장르의 법칙이 맞다, 아니다로 논의가 많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유의미한가 하는 질문을 끊임 없이 던져 보게 됩니다. 웹소설 안에서도 무협에 서부극을 섞는다든지 SF와 무협을 섞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끊임없이 신선한 활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 웹소설의 최근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제3] 출판 IP, 드라마/영화가 되다

신정아 한국외대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특임교수, 방송작가

마지막 발제는 신정아 한국외대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특임교수이자 방송작가가 ‘출판 IP, 드라마/영화가 되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신 교수는 트랜스미디어와 메타버스 환경에서 콘텐츠 제작 순서나 생명 주기가 비선형적일지라도 어디에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동심’과 그 속에 다른 서사로 들어 있는 ‘현실’이 주요 특징이라고 꼽았다. 또한 패러디 영상, 굿즈 등 콘텐츠 시장은 분리가 없고, 어떻게 가상화되며, 다른 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최근 주요 OTT 월간 사용자 수 추이를 보며 출판이 다양한 IP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저작권이나 수익 배분에 관한 법안 등 독립제작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OTT 서비스들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어서 MZ세대와 알파세대에게 플랫폼은 놀이공간이 아닌 생활공간, 소통공간, 소비공간이기에 플랫폼 이용자를 고려한 타겟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감과 효과적인 유통이 가능한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장르를 확고히 하며 팬덤을 적극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감할 수 있는 시대, 세대, 기술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 경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예로 <D.P.>와 <반교>를 설명하며 공감이 배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 보편적 문화코드에 로컬감을 더했을 때로, 문법과 화법, 감성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하며 넷플릭스 드라마 <무브 투 헤븐>

을 예로 들었다. 두 번째, 일상적 대중문화에 로컬 캐릭터를 더했을 때, 대표적으로 현실 장르이면서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 등이 다양하게 제작된 <유미의 세포들>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에 취향별 공략을 더했을 때, 웨이브의 <SF8>과 <SNL코리아>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꼭 출판 IP라고 해서 만화 게임, 영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쇼핑물, 패션 등 어디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OTT 시대의 출판 IP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전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신정아 교수

Q. 출판 저작물이 영화나 드라마가 되는 경우 대략적인 계약조건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부산영화제의 필름마켓을 다녀온 지인에게 여쭙보니 최하 2천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계약조건에서 2천만 원을 먼저 받고 완성이 되면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4천만 원으로 계약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방송과 다른 점은 책은 판매에 따른 인세를 제하는데 OTT 콘텐츠 같은 경우는 러닝 계산이 쉽지가 않아서 일시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최하 2천만 원에서 거래되지만 연속성, 연쇄성, 가능성, 확장성에 따라 일시금 거래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파생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의 거래계약 성사에 따른 2차, 3차 저작권의 파생 계약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최근 출판물 중에 미디어화되는 작품들이 많은데, 작품들을 고르는 기준이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교>나 <유미의 세포들>, <SF8>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브 투 헤븐>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작품이겠죠. 다양한 작품을 접하기 위해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 신간들을 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성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타지가 유행을 하고 묵직한 서사가 인기를 얻더라도 출판이 해야 할 몫과 사명이 있다면 시대성이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과 위로, 의미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면 과거로부터 소환하여 조명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PUBLISHING TRANSMEDIA 2021 열린포럼

출판 IP, 트랜스미디어를 만나다

2021 열린포럼 "출판 IP, 트랜스미디어를 만나다" 영상 다시 보기

서울국제도서전

포스트스크립트 2021, 프리스크립트 2022

주일우(서울국제도서전 대표)

2021. 11.

서울국제도서전의 처음 시작은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출판인들은 조선출판문화협회를 만들었고, 작은 규모지만 독자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도서전시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학무국이 주최한 교육전람회에 교육문화관을 설치하고 50여 개의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교육도서와 신간도서를 출품, 전시, 판매했다. 출판계 전체가 나서서 해방 이후에 출간된 서적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불안정한 정치와 이어 벌어진 한국전쟁은 도서전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출판인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국립도서관과 제1회 독서주간을 공동주관하면서 도서전시회를 다시 출범시켰다. 이후, 도서전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과 더불어 굵직한 반박하면서 70여 년을 이어왔다.

도서전은 광복 이후 교육전람회의 부대행사라는 맹아 형태로 나타났고, 휴전 직후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가 4.19혁명이 일어난 해에는 또 잠시 멈췄다. 1960~70년대 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존속한 도서전은 신군부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초반, 그리고 서울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열렸던 1980년대 후반에는 이런저런 내·외부 사정으로 휴지기를 가졌다. 1990년대 이후 별다른 단절 없이 매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던 도서전이 또다시 중단의 위기에 처한 것은 2020년 예기치 않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였다. 다행히 전시 자체가 무산될 뻔한 고비는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개발로 잘 넘길 수 있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독자를 만나려는 출판의 요구와 책을 만나려는 독자들의 요구가 만나는 자리인 도서전은 계속될 것이다.

사실 책을 전시한다는 것은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활동이다. 그것은 책을 ‘읽기’가 아닌, ‘보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다. 이 일에는 책 읽기를 권유하고 그 요청을 수궁하는 전시자와 관객 간의 암묵적 소통이 담겨있다. 그것은 책 읽기가 중요하며 가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인한다. 책을

1) 도서전 역사에 대한 기술은 서울국제도서전의 역사를 전시로 표현한 “굿닛: 뉴월드커밍”의 전시 도록에서 따 왔다.

전시한다는 것은 또한 책을 문화적 전승과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전시되는 책은 종종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후세에 길이 보전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인정받는다. 그것은 마치 서예가 그렇듯이, 본래의 쓸모로부터 분리된 채 순수한 물질적 형식과 미학적 특성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이처럼 전시회를 통해 책은 정보와 지식의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서, 교육과 계몽의 매개자이자 문화예술의 대표자로서 위상을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한 사회나 국가의 문화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인 동시에, 그것을 상징하는 물질적 기호로 거듭나는 것이다. 전통적인 종이책에서 오디오북, 전자책, 웹소설 등으로 책의 물질성은 계속해서 변화해왔지만, 그 사회문화적 의미만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도서전의 기여가 막대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도서전은 사회적인 흐름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반영해서 그 해의 주제를 정한다. 올해의 경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도서전을 하지 못했던 2020년의 상황과 원래의 도서전을 하고 싶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 사이에 끼어 멈춘 상황에서 주제에 대한 고민을 출발했다. 멈추었다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진화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쓴, 단속평형(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²⁾ 생명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한동안 비슷한 모양으로 힘을 축적하다가 그 힘이 급격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인데, 2년이나 잡혀 있던 우리의 일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상은 이전과 많이 다를 것이다.

단속(Punctuation)은 끊겼다 이어진다는 뜻인데, 한자어라서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전기회로를 배우면, 전구를 전지에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스위치를 가진 회로를 단속회로라고 표현하는 것 이외엔 생활에서 용례도 찾기 어렵다. 사전을 뒤져, 지금은 쓰지 않는 순우리말 단어, “긋닛”을 찾았고 그 말을 주제로 삼았다. Punctuation은 한글로 번역할 때, 구두점으로도 번역이 된다. 멈춘 지점이나 시간을 어떤 구두점으로 표현할지를 찾으면 현재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마침표, 느낌표, 쉼표, 물음표 등의 구두점을 찾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고 거기서 주제 강연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뜻을 살려, 도서전의 고민을 담아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은 도서전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를 했다.

2) Eldredge, Niles, and S. J. Gould (1972). "Punctuated equilibria: an alternative to phyletic gradualism." In T.J.M. Schopf, ed., Models in Paleobiology. San Francisco: Freeman, Cooper and Company, pp. 82-115.



2021 서울국제도서전 모습

도서전의 얼굴로 서 주었던 생태학자 최재천은 말줄임표를, 소설가 정세랑은 썸표를, 가수 황소윤은 물음표를 택했다. 거기에서 이들의 주제 강연이 시작되고, 다른 세미나의 주제들과 연사들도 정해졌다. 이런 멈춤으로 인해 삶과 노동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디지털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의 비율이 변하면 산업적 변화도 생긴다.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조직하고 관객들에게 제공했다.

주제를 중심에 두고 전시회를 꾸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산업적인 요구를 전시회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책은 한 권, 한 권의 판매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장치산업의 전시회에서 한 건만 계약을 해도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것과 출판은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전시회에서 출판사들이 책을 팔려는 노력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전시회보다 산업이 고객에게, 즉 출판이 독자에게 제공하려는 축제의 성격이 강해진다. 이 축제를 통해서 독서 문화가 진작되고 그 분위기가 전반적인 책의 판매에 양의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출판인들이 70년 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문화의 근간으로서 출판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국제도서전은 여기에 경제적인 효

과를 더할 수 있는, 저작권의 거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책 한 권, 한 권을 독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외에 내보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해외의 바이어들을 도서전에 유치하고, 이들과 우리나라 출판사들 사이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도서전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지적재산권기구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퍼블리셔스 서클”³⁾은 우리의 저작권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출판사에게 저작권과 출판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재적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전 세계 저작권 거래의 가치 사슬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출판협회와 세계도서전감독협의회 등 국제단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경로를 찾고 있고, 그것을 도서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을 해외에 파는 것 이외에, 출판 산업의 새로운 판로는 다른 미디어에 저작권을 파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영화나 드라마의 형태로 옮겨가고 있고, 그것을 통한 세계 진출도 활발하다. 이번 가을에 서울국제도서전이 부산국제영화제 비프홀 1층에 준비한, 서울국제도서전 부산특별전은 다른 미디어로 넘어가는 통로를 열어보기 위한 시도이다. 영화 쪽에서 콘텐츠를 수집하려고 만든 통로가 아니라, 출판에서 큐레이션 한 책들의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영화 쪽에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를 뚫어보려고 한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게임이나, 미술 등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위한 시도도 끊임없이 할 생각이다. 그것이 도서전을 축제를 넘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은 젊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흔히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선입관이 있는데, 실제로 도서전을 찾는 대다수의 독자들은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책을 읽는 것은 아주 ‘힙’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게임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면 책은 문화를 선도하는, 리딩 그룹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앞선 그룹이 문화를 끌어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독서의 분위기는 더 확산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젊은 독자들이 도서전에서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책들을 발견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있다. 그러한 즐거움은 세대를 넘어 흘러갈 것이다.

2022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한 해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멈추어 서 있는 이 지점에서 어디론가 움직일 것이다. 그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는 않는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잡은 주제이다. ‘반걸음.’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독자들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힘들게 땀, ‘반걸음’이 앞으로 나갈지, 뒤로 물러설지, 혹은 비틀거리면서 다른 행로를 잡을지 아직은 모른다.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과 상상을 책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상상을 넘어 우리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한 준비도 책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 안에 지혜를 담은 필자들을 직접 모실 것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예술적 작업을 한 작가들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다. 비행기가 끊겨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을 수 없었던 외국인의 손님

3) https://www.wipo.int/edocs/mdocs/copyright/en/wipo_hl_cr_yao_17/wipo_hl_cr_yao_17_charter.pdf

들도 맞을 것이다. 주빈국으로 『백년의 고독』⁴⁾을 쓴 마르케스의 나라, 콜롬비아가 찾는다. 무엇보다 소중한 독자들은 다시 코엑스에서 맞이한다.

반걸음의 원전은 『순자(荀子)』다. 규모불휴 파별천리(跬步不休 跛鼈千里). 반걸음씩 걸으면 느린 자라도 천 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인간과 자연의 한계 안에 있고, 그 움직임은 지루할 정도로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의 썩어 쌓이면, 그것은 천지개벽의 큰 변화가 된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멈춘 이후에 처음 내딛는 반걸음이 중요하다. 갈 길이 비록 가깝다 하더라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일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쌓인 미래를 전망하고 거기에 희망을 건다.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은 6월 1일에서 5일까지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열린다. 꼭 일정표에 입력해 두고 잊지 마시길 바란다. 짜잔!

주일우(서울국제도서전 대표)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국제출판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4)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민음사)

불난 책방, 모두의 책방, 그림책방노란우산

이진(그림책방노란우산 대표)

2021. 11.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책방에 불이 났습니다.

제주 그림책방노란우산 서귀포점이 월요일 오후에 잠깐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 그림책방노란우산 제주점으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책방 주인인지 확인하면서 책방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라며 빨리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믿기지 않았지만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불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화재 신고를 해야 할 만큼 큰 불인지 알 수 없어서 일단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먼저 하였습니다. 책방 일을 도와주시던 선생님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셔서, 마침 안채에 잠시 머물고 계시던 책방이음 대표님께 전화하여 화재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리고, 황급히 서귀포점으로 갔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1시간은 걸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내부는 연기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었던 인명 피해와 이웃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책방 내부가 모두 타거나 물에 젖은 상황을 보니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장 감식반과 수사관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제주점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119로 신고도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직장인이었는데 지나가던 중 화재를 목격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책방과 119에 바로 연락을 해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후 외부, 화재 철거 후 서가 모습

7년 전 제주 서쪽 시골에 카페를 열고 한편에 그림책 서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와 함께 그림책방을 운영해도 좋겠다는 지인의 말을 들은 이후 저희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꼭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좋은 그림책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골에 카페를 열더니 책방까지 하겠다는 저희 부부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가지에서나 할 법한 일인데 이런 시골에 누가 찾아오겠냐며 걱정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그림책 투어를 하러 가서 만난 그림책 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마을을 다녀오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능성을 보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장소는 모두 큰 도시 시가지가 아닌 한적한 시골이나 산골에 있었고, 그 공간 안에는 꼭 카페와 그림책서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후 그림책 전면을 보일 수 있는 서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효율성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림책이 제일 빛날 수 있는 배치를 위해 책 사이즈에 맞추어 책장을 짰습니다. 그림책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그림책을 제대로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전면 배치할 수 있는 서가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문 목수에게 맡길 형편이 되지 않아 저희끼리 머리를 모아 구두장이 요정처럼 밤에는 공사를 하고 낮에는 카페 장사를 하며 책방을 준비했습니다.



화재 전 내부, 서가 모습

제주에 그림책방이 생겼다는 소식이 그림책을 사랑하는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제주에 여행을 오면 한 번쯤은 들러 가는 곳이 되었고, 그림책 작가와 그림책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많이 들러 주셨습니다. 작가님들이 오실 땐 작가와의 만남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시골 작은 책방에서 그렇게 많은 북 토크와 행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제주 동쪽에서 한라산을 넘어 책방 행사에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주 분들 중에는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장거리로 생각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시에 그림책방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너무 먼 게 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서점이 되고 싶었는데 여전히 관광 책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책방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 원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전시공간도 마련하고 다양한 도서문화 활동들을 기획하여 책방이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닌 책을 통해 문화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꿈꾸며 2호점인 제주시 광령점을 오픈했습니다.

엄마들과 아빠·삼촌들과 청소년들의 독서모임을 통해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사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책방지기 부부가 간호사와 목사였던 이력 때문일까요? 저흰 책방이 중심인 그런 마을을 꿈꿉니다.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느슨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쉬고, 치유 받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울창한 숲과 수백 개의 오름과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와 한라산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힘과 그림책으로 아프고 지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자연에서 온 먹거리와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이루어갈 친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림책방노란우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수천 권의 그림책과 함께 7년 동안 쌓아놓은 추억들이 함께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을 확인하고 꿈인가도 싶어 언제 꿈이 깨려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났다가 원망도 했다가 멍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책방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부터 '무얼 잘못했을까? 먼저 청소를 하지 않았을까? 전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안 받아서 그랬을까? 왜 화재보험은 안 들었을까? 내가 무얼 잘못된 걸까?'하는 자책까지 들어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혹시나 책방에 찾아오신 손님이 이런 책방 모습을 보면 어쩌나 싶어 sns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오니 문을 열지 못한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 소식을 보신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의 책방대표님 한 분이 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나며 연락이 와서 화재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대표님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 알리셨고,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서 모금 운동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안에서 모금을 하신다 하여 코로나로 가뜰이나 동네책방들도 힘든데 이런 일로 심려 끼치는 게 너무나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화재 소식이 그림책협회에, 한국그림책출판협회에,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에, 골시사회에 퍼지면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온 sns에 그림책방노란우산의 후원 메시지를 담은 노랑이 퍼지기 시작하고 신문에 도 나왔습니다. 책방에 불이 나더니 후원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모금이 시작하고 31시간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

꺼번에 일어나 어찌해야 할지 또 이걸 어찌 감아야 할지 모르겠고 가시방석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대표님들, 작가님들이 빨리 재건하는 게 값는 거라며 격려해주셨고, 그림책방노란우산에 서의 추억을 아쉬워하시며 다시 복귀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저희 책방의 화재 소식을 들으신 인테리어 전문가 한 분이 돕고 싶다는 말씀을 이웃 책방 대표님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지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주셨습니다. 또한, 목공기술로, 전기기술로, 철공기술로 도움이 되는 일을 돕겠다며 일부러 시간을 조율해서 자기 일처럼 그림책방노란우산 복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된 화재 현장을 철거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이를 알려주시고 상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멋진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복구 중인 외부, 내부 모습

이제 그림책방노란우산은 저희 개인의 책방이 아닌 모두의 책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화재 전부터 그림책방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씬을 얻고 기운을 받아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와 음식을 먹고,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며, 하룻밤 쉬어도 가고, 소소하지만 멋진 전시회도 보고, 음악 공연이나 연극 등의 행사도 간간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함께 운영하는 책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방이라는 공간에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꾸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후 후원으로 다시 시작한 이곳이 이제는 생각했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책방을 만들 때에도 책방을 만들기 위한 '방법'보다 '사람'을 먼저 소개받았던 것이 그림책방노란우산이 된 것처럼, 책방 삶 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 곁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책방을 열고 싶습니다.

책방에 불이 났는데 힘든 일보다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모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어 희망이 보였다고 해주셨습니다. 제주의 작은 책방의 일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이런 일들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책방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곧 그림책방노란우산 서귀포점이 다시 오픈합니다.

힘들고 지치셨나요?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림책방노란우산에 언제든 찾아오세요. 따뜻한 쉼이 되고 치유와 힐링이 되는 책방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의 책방 그림책방노란우산입니다.



이진(그림책방노란우산 대표)

남해의 섬 나로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한 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물으로 이주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2015년 제주도로 이주하여 다시 섬사람이 되었으며,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림책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되어 결국 그림책 전문 책방 주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어린 시절 섬의 추억을 담은 첫 그림책 『엄마의 섬』을 보림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그림책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주 그림책방노란우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stagram @jinyallim

jiny7272@naver.com

문피아와 밀리의 서재 인수전의 의미와 셈법

서찬휘(대중문화 칼럼니스트)

2021. 11.

지난 2021년 9월 10일, 콘텐츠 업계에 큰 인수 소식이 둘이나 들려왔다. 이날 웹툰 업체인 '네이버웹툰'이 웹소설 업체 '문피아'의 지분 325만 5,511주(36.08%)를 1천82억 원에 취득하며 1대 주주에 올랐고, 음원 서비스 업체인 '지니뮤직'은 '밀리의 서재'의 지분 25만 주(38.6%)를 464억 원에 인수해 역시 1대 주주에 등극했다.

이번 인수에서 공교로운 대목은 인수 발표가 난 날이 같다는 점도 있지만 인수된 두 업체 모두 근본적으로는 텍스트 중심 콘텐츠를 다루는 업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각기 포털 웹툰과 음원 서비스라는 성격 다른 곳에 안긴 풍경을 보며 그 의미와 각자의 셈법을 짚어 본다.

문피아: 네이버 웹툰 파이프라인의 국내 중심축

문피아를 인수한 곳은 네이버 웹툰이다. 포털 네이버에서 웹툰 서비스를 총괄 운영하는 업체이자, 네이버 웹소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 웹툰은 바로 얼마 전 카카오 웹툰을 운영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피 터지는 인수전을 벌이기도 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북미권 최초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와 더불어 역시 북미권 웹소설 플랫폼인 '래디쉬'를 인수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일본의 대형 출판·영상 미디어 그룹인 '카도카와'의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2021년 1월 517만 8,300주(7.3%)를 확보함으로써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네이버도 이에 질세라 '태피툰'의 운영사 콘텐츠퍼스트의 지분 25%를 334억 원에 사들인 데 이어 북미권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6,532억 원에 통으로 인수했다.



네이버 웹툰, 문피아 로고

이러한 인수전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몸집 불리기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하는 웹 기반 스토리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문피아 인수도 그중 하나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인수 경쟁은 웹툰과 웹소설을 아우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웹소설에 눈이 가는 까닭은 웹소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IP(지적재산권)로 엮이는 밸류체인 의 시작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목의 이유는 한때 영상 업계에서 만화를 주목했던 이유와 비슷하다. 과거 영상 콘텐츠를 처음 부터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억 단위부터 시작하는 비용을 들여야 했고 그 결과는 큰 성공 아니면 크게 망하는 것뿐이었다. 영상 업계가 만화를 주목했던 까닭은 처음부터 모험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기를 끈 작품을 선택해 영상화하면 팬층을 끌어들이는 물론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 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웹소설에 주목하는 까닭은 바로 그 만화보다도 담아내는 서사가 분량 대비해 많은데 일러 스트 외에는 연출과 작화라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제작비 측면에선 한층 더 저렴하기 때문 이다. 물론 웹소설은 일일 연재에 5천 자를 최소 단위로 삼아 주 단위인 웹툰보다도 연재 주기가 짧아 작가 개인에게 떨어지는 노동 강도가 절대 약하다고는 할 수 없고, 제작비가 낮다는 게 곧 가치가 낮 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텍스트가 주인 소설이 압도적인 분량과 서사량으로 끊임없이 연재 형태로 진행 되며 독자의 피드백을 받아내는데 '제작비' 자체만은 영상은 물론 웹툰보다도 적다면 실패율을 한층 더 낮추는 단초로 삼을 수 있다.

자연스레 현재 IP 비즈니스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그리고 이어서 반응을 보아 영상으로 제작하며 셋을 동시에 마케팅하는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어 만화화와 영상화로 이어진 『김비 서가 왜 그럴까』는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같은 대형 히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포털 외의 웹소설 플랫폼이 무엇이나 할 때 문피아가 제격이었던 셈이다. 4만 7천에 이르는 등록 작가 수를 기록 중인 문피아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웹소설들이 독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포털보다 이 용자 수는 적지만 이용자당 매출액은 높은 플랫폼으로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문피아에 연재된 대형 흥행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후 만화로도 제작되었고 현재 영상화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전지적 독자 시점』 웹소설, 웹툰 포스터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단말기라면 뭐든 바로 TV화를 시켜주는 넷플릭스,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 지상파 및 케이블, 종편 등 TV 채널의 우위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는 시점이다. 콘텐츠 업체들은 얼마나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는가로 싸우게 되었다. 웹소설은 바로 그 싸움의 최신 무기가 되어 있다. 네이버 웹툰의 문피아 인수는 그런 점에서 문피아가 지니고 있는 충성도 높은 독자층과 질 좋고 다양한 작품들의 라인업을 네이버 웹툰의 주 무기인 웹툰과 연결하면서 북미권의 왓패드와 일본의 '라인망가' 등으로 연결해나갈 국내외 파이프라인의 국내 중심축을 세우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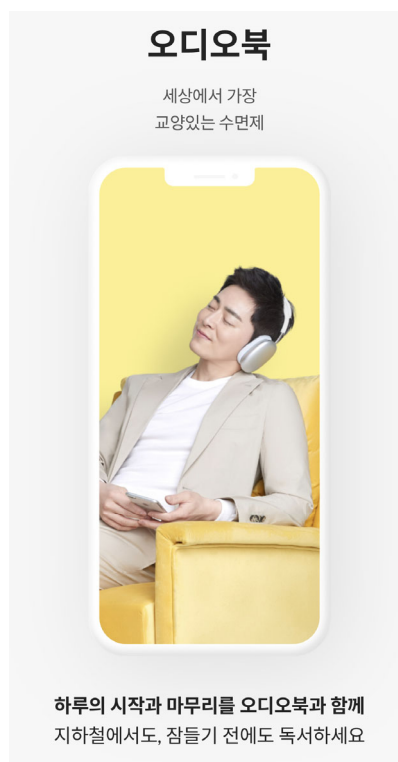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을 KT의 밸류체인으로 돌린다

한편 밀리의 서재는 ePub 기반 전자책으로 제작된 '도서'를 정액제 구독 모델로 제공하는 업체로, 소설만이 아니라 비창작 기반 콘텐츠도 대상으로 한다. IP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밀리의 서재는 다소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엄밀히 말해 밀리의 서재가 제공하는 전자책 대부분은 밀리의 서재 전용이 아니라 여타 전자책 서비스에도 제공되고 있어서, 이들 전자책의 내용물로 직접 완전히 다른 매체인 영상이나 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유독 밀리의 서재가 주목 받는 까닭은 구독형 대여 모델을 적용한 전자책 업체 가운데 대표격이기 때문이다.

음원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 지니뮤직이 텍스트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업체 밀리의 서재를 인수한 건 다소 생뚱맞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다. 하지만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에 눈독을 들인 강력한 동인에는 밀리의 서재가 지니고 있는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오디오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즉 AI가 있다.

오디오북은 그야말로 책을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뜻한다. 성우나 아나운서, 유명 연예인을 기용해 육성으로 읽어주는 사례도 있지만 어느 업체에서도 그 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전자책 업체들의 오디오북 상당수는 밀리의 서재 경쟁사인 ‘윌라’처럼 육성 녹음한 오디오북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가 아니면 결국 많은 경우 기계 낭독 기능인 TTS(Text-To-Speech) 중심이다. 밀리의 서재는 이 TTS에 AI를 동원해 좀 더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지원함과 더불어 1시간 분량으로 책에 대한 요약해설을 해 주는 리딩북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니뮤직은 이 오디오북 콘텐츠를 음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사 서비스에 더 하려는 구상으로 밀리의 서재 인수전에 나섰다.

지니뮤직이 스토리성을 지닌 ‘책’까지 오디오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 노래에 한정되는 음원을 넘어서는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복안이었던 셈인데, KT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IPTV 서비스인 올레TV와 OTT인 시즌(SEEZN), 케이블 채널인 SKYTV 등 자사가 꾸리고 있는 계열 서비스 안에 밀리의 서재의 오디오북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로고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인수한 까닭에는 AI를 이용한 큐레이션과 음성 합성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콘텐츠가 필요했다는 판단도 있었던 듯 보인다. 멜론이 멜론스테이션이라는 오디오북 서비스를 2020년 6월 시작한 시점에서 뒤늦게라도 오디오북 탑재가 필요하기도 했을 터고, 유튜브 뮤직 등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큐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부문에 AI를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은 중요했다. 밀리의 서재 인수는 그런 점에서 분명 직접 개발보다는 손쉽게 기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문제는 KT가 구축하고 있는 밸류체인이 대중들에게 많은 선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니뮤직은 멜론(카카오)와 플로(SKT)에 이어 3대 음원 서비스라고 불리곤 했지만 점유율 면에서 멜론의 반에 못

미치는 15.1%를 기록 중이다. 현재는 새로 등장한 유튜브 뮤직과 스포티파이에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올레TV가 맡고 있는 IPTV는 이미 OTT의 강세 앞에서 지나간 유행이 되어가고 있고, OTT로 내세운 시즌(SEEZN)은 올레TV모바일에서 바꾼 이름이지만 구성 면에서 IPTV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국내 서비스 중인 OTT 중에서는 최하위 급인 2%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KT 밸류체인 개념도(출처: KT)

여기에 밀리의 서재는 자회사도 아닌 증손회사로 편성되었다. 다시 말해 밀리의 서재는 KT그룹 → 시즌 → 지니뮤직이라는 지배 구조 말단에 위치한다. 콘텐츠 활용과 이를 위한 투자가 계열사 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KT '밀리의서재' 증손회사 편성, IPO 앞두고 최선의 선택인가〉, 이진휘 기자, TOP DAILY, 2021.09.13.)

두 업체의 인수전에 비추어 본 콘텐츠 업계의 썬법

네이버 웹툰의 문피아 인수, 그리고 KT의 밀리의 서재 인수에는 여러 가지 결로 해설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점유율 싸움에 대응하기 위한 IP 확보전이자 기술적 대응이라는 점만은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은 비단 네이버 웹툰과 KT만이 아니라 양 사의 동종 콘텐츠 업계가 모두 혈안이 되어 치르고 있고, 또한 모두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OTT를 위시한 영상 미디어 채널과의 연결점을 향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물량 공세가 필요하며, 나아가 결국은 각 사가 오리지널리티와 권리를 쥔 콘텐츠를 만들거나 확보해내거나 해야 한다 - 그러지 못하면 곧바로 밀려날 것이다 - 는 점이다. 이는 콘텐츠 제작

과 유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된 현 시점 미디어 업계의 숙제다.

단지 무엇을 원작으로 영상화에 성공했다는 것에 기뻐하고 의미를 부여하던 시대의 낭만(?)은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동시다발 연결과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볼 게 이다지도 많은 시대에 대중의 반응은 곧바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만에 하나 이 미디어 전쟁에서 단순하게 접근하려 드는 곳이 있다면 어느 하나도 연지 못할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파급력을 챙기기 위한 인수전에 연일 불을 뿜고 있는 웹툰 업계의 선택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지만, 전 국민 대상 이동 통신이라는 압도적인 캐시 카우를 지니고 있는 타인지 미디어 사업에서는 언제나 다소 안일하고 어정쩡한 KT의 선택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업계에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건 결국 강고하게 버텨내는 곳으로 정리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결단코 난립을 좋아하지 않는다. 버텨낸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 자체는 쉽지만, OTT를 위시한 영상 콘텐츠 업계는 오래지 않아 다가올 게 분명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와 주 4일제로의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음성 엔터테인먼트 수요 확대를 직시해야만 오롯이 대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정리된 판세 속에서 더 많고 재미난 콘텐츠를 쉽게 제공받길 원하며, 갈수록 손발이 자유로워질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을 엔터테인먼트를 필요로 한다. 이번 두 업체의 인수전은 그 과정으로 가는 업체들의 복잡다단한 사정과 일말의 셈법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서찬휘(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만화 칼럼니스트, 만화 창작자, 여행 작가.

만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글과 책, 강연으로 풀어 왔습니다. 저서로 『키워드 오덕학』(2017), 『나의 만화유산 답사기』(2018), “만화 웹툰 작가 평론선” 시리즈의 『윤승운』(2018)·『한혜연』(2019)·『김진태』(2019), 『덕립선언서』(2020)가 있습니다. 만화 <난임일기>(2020), <작정해도 어렵네>(2021)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iam@seochanhwe.com

http://seochanhwe.com

Twitter/Facebook/Instagram @seochanhwe

지역서점 불광문고는 무엇을 남겼나?

장수련(전 불광문고 점장)

2021. 11.



© 최근모

지난 9월 5일 25년 동안 약속된 시간에 문을 열고 닫았던 불광문고가 언제 다시 문을 열겠다는 기약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8월 17일 아침 불광문고 입구에는 영업종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고, 불광문고 소셜미디어에는 영업종료를 알리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불광문고에 책을 한 번이라도 주문한 이력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문자로 영업종료를 알렸습니다.

평소에는 인기가 없던 불광문고 소셜미디어에는 영업종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서점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공지 이틀 뒤인 19일에는 '지역의 문화자산 불광문고 폐업을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청원이 은평구청 열린청원에 등록되었습니다. 30일 안에 500명이 공감하면 구청장이 답변을 하는 청원 제도에 하루 만에 500명이 훌쩍 넘게 공감하면서 구청에서도 불광문고의 영업종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영업종료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여러 언론사에서 불광문고 영업종료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영업종료를 결정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서점 일꾼으로 일했던 지난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는데 많은 분들이 불광문고의 폐업을 막기 위해 애써주시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댓글과 사연을 보내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독자들의 댓글과 사연 속에서, 그리고 서점 살리기 청원과 서명운동에 나선 주민들의 모습에서 불광문고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공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광문고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책으로 노는 놀이터였고, 취업과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겐 나침반이자 시원한 샘물 같은 곳이었으며, 늘 독자들과 호흡하며 자리를 지켜온 치유와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불광문고는 1996년 11월 150평 규모로 문을 열었으며 두 번의 확장 공사로 영업을 종료할 때는 230평 규모였습니다. 20~50평 남짓한 서점들 밖에 없었고, 지역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가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생긴 큰 규모의 서점이었습니다. 마땅하게 갈 곳도 없고 책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던 시절, 동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학교가 끝나면 참새방앗간처럼 불광문고를 들렀다가 집이나 학원으로 갔으며 친구들과도 "우리 불문(불광문고를 줄여서 부르는 말)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불광문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광역 주변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문화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광문고의 폐업을 막아달라"는 독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불광문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불광문고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매출 하락을 막아보고자 2018년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고 불광문고는 영업종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광문고를 25년 동안 운영한 최낙범 대표님은 평소에 "불광문고가 운영될 수 있게 도와준 직원들과 거래처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극단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스스로 영업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불광문고 대표님은 "우리는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출판사 대표님은 소셜미디어에 불광문고의 고독사를 애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불광문고 내부에서도 존엄사, 고독사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모

25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불광문고에서 일했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불광문고와 함께 했던 직원들은 짧게는 13년, 길게는 22년 가까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직원들 중 몇몇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불광문고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책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광문고 대표님은 새로운 서점을 하더라도 책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니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점은 책을 팔아 운영되는 공간인데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이 아닌 팔릴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3년마다 개정하는 한시법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책의 할인율을 현금 10% 할인에 간접 할인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니, 온전한 도서정가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완전한 도서정가제 혹은 부분정가제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국의 수많은 지역서점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법과 제도의 틈을 비집고 편법 할인이 판을 치면서 똑같은 책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반값에 파는데 지역서점에서는 10%만 할인하거나 정가에 팔아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줄 폐업이 이어졌습니다. 책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정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출간한 지 18개월 이상 된 도서와 취미실용·초등학습서로 분류되는 책들은 온라인서점에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서점 간 할인 차이가 크다 보니 '인터넷에서는 반값에 파는 책을 왜 여기에서는 비싸게 받느냐?'는 항의를 받거나 '도둑놈' 소리를 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서 유통구조를 열심히 설명해보아도 독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프라인서점은 왜 온라인서점 할인율을 따라갈 수 없었을까요? 불광문고 규모의 서점에서는 책의 수익률을 보통 17% 정도로 잡습니다. 정가 만 원짜리 책을 팔았을 때 1,700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수익률이 낮은 책들도 많습니다. 온라인서점에서 반값 할인을 하던 시기에는 불광문고가 출판사나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책의 가격보다 온라인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온라인서점, 대형서점의 도서 매입가보다 일반 오프라인서점들은 기본 10~15% 높은 가격에 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서점은 책을 아주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큰 폭의 할인이 가능했고, 지역 서점은 책을 비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온라인서점처럼 할인해서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금 10% 할인과 5% 간접 할인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서점은 온라인서점보다 매입률이 높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 10% 할인 또는 10% 마일리지만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점은 기본 할인과 마일리지에 더해 카드사와 통신사 제휴 할인이 있고 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료가 무료이며 다양한 굿즈들로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서점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할인율이 제한된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동네서점들이 문을 열었고, 20평 내외의 공간에 책방지기의 취향에 맞게 책을 진열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수익을 위해 차나 술을 판매하기도 하는 보다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네책방들은 큐레이션으로 진열된 책과 문화행사라는 콘텐츠로 온라인서점·대형서점과 경쟁하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차별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오프라인서점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서점이 생겨나면 그와 관련된 기사가 관심을 끌지만, 끝내 문을 닫고 마는 서점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을 뿐입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대형서점들이 전국 주요 지역으로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오프라인서점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규모와 인테리어, 편의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불광문고 인근에도 큰 쇼핑몰이 생기면서 대형서점의 지점들이 입점을 하고 불광문고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서점을 가기 위해 쇼핑몰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머물던 사람들이 쇼핑몰로 이동하면서 매장 방문객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서점은 온라인 할인 경쟁에 밀리고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대형서점에 밀려 점점 존재를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독서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다양한 미디어에 밀려 독서 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모

불광문고는 25년 동안 숙련된 일꾼들이 좋은 책을 선별해서 진열, 관리하는 것이 서점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운영한 서점입니다.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서점에 등장하기 전부터 매달 주제를 정해 책을 진열하고 대다수의 서점들이 출판사 가나다순으로 책을 진열하던 때에도 주제별로 소분류하여 책을 진열했습니다. 수시로 시장 조사와 매출 분석을 통해 매장의 서가 구성을 변경하고 독자들이 서점에 왔을 때 우연히 발견한 책과 인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편집 진열에 힘썼습니다. 불광문고가 생각한 서점의 경쟁력은 독자들에게는 좋은 서점일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하락하고 더 이상 반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보통 회사들은 구조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불광문고는 숙련된 직원들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유지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지만 하락하는 매출과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 때문에 갈수록 적자 폭은 커졌습니다. 작년 5월 마포구 망원동에 있던 불광문고의 지점 한강문고가 13년 만에 먼저 문을 닫았고, 작년 9월에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비교적 근무연수가 짧은 5명의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불광문고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울적하고 서글픕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서점은 비전이 없으니 마음을 접으라고 했지만 불광문고가 없는 불광동을 떠올리니 더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직원들과 이야기하여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건물에 임대 공간을 축소하여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임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불광문고가 사라지고 나서 불광동에는 서점이 없습니다. 불광동뿐 아니라 녹번동, 대조동 인근 지역에도 서점은 없습니다. 영국의 라이프잡지 <모노클>에서는 매년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데 지역의 독립서점 수가 평가 기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점이 사람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여러 지자체에서 독서 장려를 위해 독자에게 책 구매를 위한 도서구매지원비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독자들은 온라인서점의 반값 할인을 경험한 터라 책이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도서구입지원금으로 책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책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정부의 출판 관련 산하기관에서는 전자책 40만 권과 책 5,000권을 무료 배포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책을 할인받아 사고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면 독자들은 점점 제값을 지불하고 책을 구매하는 것을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동시에 책이 지닌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도는 좋은 일이나 방법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자책 무료 제공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 일반 오프라인서점들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고, 다양한 행사로 독자들의 방문을 유도하던 동네책방들은 개점휴업 상태로 서점 문을 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스러운 정도로 암울한 나날이었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시법으로 3년마다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는 2020년 11월 개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으며, 2021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서점의 매출 상승을 이유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에서 서점업을 배제시켰습니다. 오프라인서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점은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력갱생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성과 문화적 역할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이 책이 아닌 다른 콘텐츠를 고민하지 않고 서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는

현실이 서럽기도 서글프기도 합니다.

불광문고는 25년 된 서점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 25년이 지나는 동안 무수한 바람과 햇볕과 땅과 빗물의 노력이 스며있듯, 불광문고는 오랜 세월 그 안에서 책과 함께 삶의 방향을 찾고 책과 함께 한 시절을 보냈던 독자와 직원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 오래된 것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안에 녹아있던 사람들의 삶도 함께 휩쓸려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는 좋은 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서점들이 분투 중입니다. 부디 그 서점들이 독자들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지원이 모여들면 좋겠습니다.



장수련(전 불광문고 점장)

불광동에서 나고 자라 불광동에 있는 서점 불광문고에서 스물두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불광동에서 책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며 동네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6jang@hanmail.net

www.facebook.com/bkbook1996

www.instagram.com/bulgwangmoongo

* 사진 출처: 인문360 탐구생활 '스물세 살의 불광문고 - 그곳에 가면 서점이 있다' © 최근모

탄생 100주년을 맞은 책생태계 사람들 ①

책 생태계 선구자 엄대섭 이야기

이용남(한성대학교 명예교수)

2021. 11.

치열했던 엄대섭의 꿈

엄대섭은 한마디로 가슴에 옹골진 꿈을 품고서, 이를 위해 한평생을 불사르며 달려온 인물이다. 청소년 시절 돈벌이의 꿈을 실현하고자서는 새로운 인생 사업으로 '독서 및 도서관' 운동의 거대한 꿈을 좇아 평생 치열하게 살아왔다. 20대까지는 돈벌이의 신동으로, 30대부터는 사립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 한국 도서관협회 재건(초대 사무국장), 40대부터는 전국 단위의 마을문고 보급 운동, 회갑 무렵인 60대부터는 공공도서관 개혁 운동에 온몸을 바친 책 생태계 선구자이다.

엄대섭 이야기의 출발은 가난한 가정에서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꿈을 구현하는 과정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고향인 울주군의 소작농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소작이 떨어지고 생계가 막연하여 고향을 등지는 부모와 함께 여덟 살 때 일본 규슈(九州) 땅으로 가게 되었다. 공사장의 인부로 이 지방저 고을로 전전하는 부모를 따라다니다가 부친의 사고 이후 그는 14살에 다섯 동생을 양육해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다. 논 한 두락의 크기조차 모르던 그는 "논 열 두락만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당시에 갖고 있던 최고의 꿈이었다. 그는 두부 장수, 세탁소 점원, 방직공장의 직공 등 닥치는 대로 온갖 잡역을 해가면서 온 가족을 부양하며 연명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틈만 나면 헌책을 구해 읽는 일을 유일한 취미로 삼았다. 공사장 인부로 전전하는 부모를 따라다니느라 초등학교를 다섯 번이나 옮기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갈증을 메워주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머니의 날품팔이 수입을 합쳐야 겨우 연명하는 실정인지라,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로 돈을 벌려고 폐품 모으기 행상을 하던 때였다. 좋은 돈벌이 꿈만 항상 생각하던 때에, 어떤 교양전서에서 "남의 흉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같은 일이라도 남이 안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대목을 읽고 정신이 확 들었다. 며칠 동안 '남이 안 하는 기발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느라 일도 안 나가고 방안에서 뒹굴었다. 그는 마침내 희한한 광고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

다. 당시 일본에서는 대동아 전쟁을 앞두고 일용품 공급을 통제하는 바람에 의류가 아주 귀해서 서민들은 내복이나 노동복, 겹옷 등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부유한 집에서는 낚지도 않은 헌옷을 다락에 쌓아둔 채 사장시키고 있는 형편이었다.

“...비상시국 하에 부유하다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헌옷을 사장해서 좀먹혀 버리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러한 고의류를 매입하기 위해서 x월 x일 x시에 귀덕에 들르고자 하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써서 부유층 집집마다 돌렸다. 과연 성과는 좋았다. 이들이 입지 않으나 헐지도 않은 옷들을 모조리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옷을 사들이고 팔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으며,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장사에 크게 성공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책을 단순한 교양으로서가 아닌 ‘생존경쟁의 무기’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돈 버는 솜씨가 남다르다고 해서 일찍이 주변에서는 그를 ‘돈벌이의 신동’으로 부르기도 했다.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해방 즉시 귀국해서는 경주 지방에 100여 두락의 농토를 매입하고, 훌륭한 기와집도 사들이고, 울주군 강동면에 멀치잡이 어장과 대형 목선도 사들여 처음으로 부자가 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도서관 운동으로의 방향 전환도 책 한 권으로

해방 직후 귀국한 엄대섭은 사회적 갈등과 한국전쟁 혼란을 거치며, 더 이상의 돈벌이는 중단한 채 동아대학에 늦은 나이로 적을 두고 두서없이 헌책을 사들이며 책임기에 몰두하고 시국을 관망하면서 지냈다. 청소년 시절부터 책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고서점을 돌아다니던 중 1951년 어느 여름날 부산 시청 앞 고서점에서 처음 보는 책 한 권을 입수했다. 『圖書館の 實際的 經營』이라는 오래된 일본책이었다.¹⁾ 읽어 보니 그가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사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한 권의 책이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3천여 권의 책을 모두 가지고 울산으로 가서 사립 무료 도서관을 열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학생이었으며 그 이외에 회사원, 공무원 등의 일부 식자층이 대부분이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책이 없어서 제대로 독서를 하지 못하는 농민에게 골고루 책을 읽히기 위해 당시 전쟁의 부산물인 탄환 상자를 재활용해 ‘순회문고’를 만들기까지 했다. 우선 50개의 순회문고에 책을 넣어 울산 변두리에 일정 기간씩 돌렸다. 그러나 워낙 독서인구가 적고 일일이 지도 하기가 어려워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1) 乙部泉三郎, 1939, 『圖書館の 實際的 經營』, 東京: 東洋圖書株式合資會社.



1951년에 울산에서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변두리에 돌렸던 순회문고



2018년 울산도서관 신축 개관 기념 엄대섭 전시회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설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뒷조사와 의혹의 눈초리가 심해 어려움이 컸다. 큰 자산가도 아닌데 무료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것이었다. 사상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이에 엄대섭이 도서관 관련 도서를 더 깊이 살펴보니,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대다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터득하고, 운영하던 사립도서관을 지방정부 소유의 도서관으로 기부채납 하고자 했다. 처음에 울산읍장을 찾아가서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경주읍장을 설득시켜 장서와 시설을 1953년 경주읍에 기부채납한 후 무보수 촉탁 관장으로서 책임기 운동을 펼쳐나갔다.

전국적인 마을문고 보급 운동 시작

그러나 당시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고작 20개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에서 단기간에 공공도서관을 늘려 농민들이 책을 읽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공공도서관이나 독서 습관이 부족한 후진국의 농촌에서는 마을 단위의 주민을 조직하고 그들 가까운 곳에 작은 규모의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독서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경주시 변두리 마을에 시험적으로 '마을문고'를 설치 운영해보고는 성공을 자신하게 되었다. 엄대섭은 다시 전국적인 마을문고 운동에 인생을 걸기로 하고, 1961년 민간 운동단체를 설립, 본격적인 설치 운동에 들어갔다. 능력 있는 분들을 설득하여 자기 고향에 마을문고를 설치해 주도록 홍보·권장하며, 설립된 문고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육성시킨다는 전략이었다. 문고 보급 운동은 처음에는 신중 책장사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며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엄대섭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중앙 언론계의 공동모금 지원을 받으며 매년 1천 곳 이상의 마을에 급속히 문고를 확산시켜 나갔다.



1960년대 중반 마을문고가 설치되는 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하고 있다(전북 완주군).

1970년도 중반부터는 문고지도 전담 지방조직 신설, 문고지도자 교육 강화, 읽기 쉽고 만화로 풀이한 농업기술 도서의 출판 지원 등 질적인 육성에 주력하였다. 문고의 내실을 갖추기는 설치 과정보다 훨씬 어려운 과업이었으며 그는 재정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민간 운동단체의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초기 몇 년간은 임대섭 본인의 사재로서 충당하였으나, 60년대 후반부터는 능력 있는 회장단과 임원진을 구성한 후, 그들의 출연금으로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그러면서 장차 는 항구적인 기금을 바탕으로 한 재단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운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항구적인 기금의 재단을 구성하고자 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으나 몇 차례 실패하였다. 결국 임대섭은 1980년 '막사이사이 상' 수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을 계기로, 재단 구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과정에 새마을조직으로 통합됨으로써,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중도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1981년도 막사이사이상 수상식 장면(왼쪽에서 두 번째가 임대섭)

마을문고는 “밑바닥의 민중을 조직하여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독서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하나의 문화 혁명”²⁾이란 신념 아래, 공공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한시적 운동이었지만, 앞으로 전국 읍, 면 단위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면 문고를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편입시키겠다는 당초 전략의 결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공공도서관에 근대성의 부리를 내리고자

엄대섭은 마을문고 운동에서 물러나 1년 정도 쉬다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50여 개 공공도서관 개혁운동의 깃발을 다시 들었다. 구체적인 사업단체가 아닌 목표사업에 불을 붙이는 계몽단체로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막사이사이상 상금으로 우선 시작하겠다고, 1983년 1월에 ‘대한도서관연구회’라는 단체를 발족하였다.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도서관은 ‘독서실’이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즉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운영개선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며, 국민 대중의 도서관 이용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1984년과 1985년에는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의 처참한 실정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순방길에 나섰는데, 주변에서는 실제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실정은 비슷할 터이니, 지역 단위로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부 도서관만 조사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지만, 그는 65세에 자가운전으로 끝까지 마쳤다. 큰 어려움과 싸울 때는 현장 어려움의 ‘반복 실감’을 통해서 인고(忍苦)의 내공을 쌓아 폭발시키는 엄대섭 특유의 전술이었다. 그는 “육체적인 고생보다는 찾아간 도서관마다 새로운 참상에 부딪혔을 때의 정신적 고통은 마치 전우의 시체를 넘는 병사의 심정이 되곤 하였다.”³⁾는 소감으로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도서관 현실과 문제점 분석은 다행스럽게도 1985년 8월에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어 사회에 자극을 주고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도서관 개가제(開架制) 및 관외대출 운동은 도서관이 공부방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료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실천적 노력이었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를 평가·등급화하여 민낯을 공개하고, ‘간송도서관문화상’을 제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등 그의 공격적인 개혁 운동은 도서관 현장에 적지 않은 파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는 도서관 행정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관계부처 설득에 골몰하기도 했다. 그는 도서관 소관부처를 문교부에서 신설 예정인 문화부로 옮겨 책의 출판(생산)과 보급(활용)의 연계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도서관법 개정, 도서관 입관료 폐지 등 정책 제안을 하며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이들 활동을 위해 자체 발간한 격월간 기관지 『오늘의 도서관』을 발행하고 전국의 도서관은 물론 교육, 문화, 언론, 국회,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여론 형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엄대섭은 건강상의 이유로 1987년 모든 활동을 접은 후, 아들이 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말년을 보내다가 2009년 향년 89세로 타계하였다.

한마디로 엄대섭은 ‘독서와 도서관’에 외곶 인생의 승부를 걸고서, 실망과 좌절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2) 엄대섭, 1968, 농어촌에 심는 독서의 씨앗: 마을문고 설치 1만개를 돌파하고, 『신동아』 47 : 252.

3) 엄대섭, 1985, 전국 공공도서관 순방을 끝내고, 『오늘의 도서관』 6 : 1.

사회 인식의 절벽을 허물고, 책과 도서관의 가치를 이해시키고자 끝없이 도전하며 달려왔다. 전국적인 풀뿌리 도서관 운동의 축적 없이 120여 년 전에 서양으로부터 공공도서관 개념을 수입한 척박한 형편에서, 엄대섭은 건국 후 최초의 전국 단위 도서관 운동 선구자였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경용 외, 1981,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의 외길 한평생』, 서울: 장학사.

이용남, 2013, 『이런 사람 있었네 :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이용남, 이용훈, 정선애 편, 2019, 『오늘의 도서관』 (영인본) 1~9,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이용남(한성대학교 명예교수)

대학 시절 농촌봉사 활동 인연으로 마을문고 운동, 대한도서관연구회 활동을 20여 년간 엄대섭과 함께하였으며, 1982년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 교수 생활 시작으로 중앙도서관·총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을 양성하다가 2008년 정년퇴직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장,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문화관광부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관련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하여 왔다.

lyn0802@hansung.ac.kr

캐시 박 홍의 사소한 감정

안성학(KPIPA 미국 코디네이터, 미국 파피펍 대표)

2021. 11.

지난 9월, 타임지에서 2021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다. 올해 발표된 100인에는 윤여정 씨 외에도 다른 한국인들이 포함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계 2세대이다. 이 중에는 윤여정 씨와 같은 영화에 출연한 스티븐 연(Steven Yeun)과 시인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 그리고 인권 운동가 신시아 최(Cynthia Choi)가 있다.

캐시 박 홍은 지난해 초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의 자전적인 에세이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 An Asian-American Reckoning)』를 출간했다. 이 에세이는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폭력을 경계하는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은 이 에세이가 화제가 되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이며 연기자인 알리 웡(Ali Wong)은 타임지에 실은 자신의 글에서 '캐시 박 홍의 에세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미국 내에 항상 존재해 왔지만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던 사회문제를 조명했다'며,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더욱 경계하고 맞서 연대해야 하는 시기에 나온 도서'라고 극찬했다.



타임지에 실린 캐시 박 흥

캐시 박 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다. 이후 미국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 과정을 마치고,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Iowa Writer's Workshop)의 MFA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 거주하며,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의 시 편집자이자 뉴저지의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창작 과정(Creative Writing MFA)의 시 프로그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집으로는 2002년 푸시카트 문학상(Pushcart Prize)을 수상한 『번역하는 Mo'Um(Translating Mo'um)』과 2006년 버나드 여성 시인상(Barnard Women Poets Prize)을 수상한 『댄스 댄스 레볼루션(Dance Dance Revolution)』, 그리고 2012년에 출간된 『엔진 제국(Engine Empire)』이 있다. 이 외에도 시(Poetry), 퍼블릭 스페이스(A Public Space), 뉴욕타임스, 파리 리뷰(The Paris Review), 맥스위니스(McSweeney's), 배플러(The Baffler), 예일 리뷰(Yale Review), 더 네이션(The Nation), 보스턴 리뷰(The Boston Review) 등에 시가 게재되었으며, 빌리지 보이시(Village Voice), 더 가디언(The Guardian),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및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해 왔다.

2016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윈덤-캠벨 문학상 시 부문(Windham-Campbell Literature Prize in Poetry) 수상자였고, 2020년에 출간된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로 2020년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 자서전 부문(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 for Autobiography)을 수상했고, 풀리처상 일반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또한 2020년 타임지의 최고의 논픽션 도서 10권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그레타 리(Greta Lee)와 A24에 의해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캐시 박 흥은 구겐하임 펠로우십(Guggenheim Fellowship) 및 국립 예술 재단 펠로우십(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Fellowship)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을 위한 글과 옹호 활동으로 2021년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리스트에 선정되었다.

캐시 박 흥은 타임지의 100인 선정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시인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시인들은 타임지의 100인 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고, 내가 표지에 실렸다.”고 자신의 심경을 담담히 밝혔다. 자신의 에세이에서도 ‘백인도 흑인도 아니고, 백인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아시아인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에 따른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StopAAPIHate

캐시 박 흥이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감정’을 알렸다면, 다른 한편으로 현장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 있다. 캐시 박 흥과 함께 올해 타임지의 100인에 선정된 신시아 최(Cynthia Choi)이다. 한인 2세인 신시아 최는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 단체인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중국인(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의 공동 대표이며, “아시아계 미국인 혐오 중지(Stop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ate)” 단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타임지 올해의 100인에 선정된 Stop AAPI Hate 공동 대표들

이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모두 9,081건의 증오 범죄 발생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 중 4,548건이 2020년에 발생했고 4,533건이 2021년에 발생했다. 그중 언어적 괴롭힘이 전체 신고의 63.7%를 차지했고, 고의적인 회피가 16.5%, 신체적 폭행이 13.7%, 침을 뱉는 행위가 8.5%를 차지했다.

여성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3.3%에 이르렀고, 전체 신고의 11.0%는 직장 내 차별과 서비스 거부, 운송 금지 등의 인권 침해였으며,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8.3%를 차지했다.

사소한, 사소하지 않은 감정들

저자는 출생과 함께 딸이 부여받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모두 7편의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저자는 인종차별을 다루면서 자본주의 미국에서 소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민 1세 부모 아래 자란 1.5세와 2세는 학교에서부터 접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며 자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영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부모가 자신을 방어하고 옹호해주리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고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며 통역까지 맡는 가정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할 것이다.

미국에서 유태인이나 흑인에 관한 도서는 많은 반면 아시아인에 관한 도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소수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대중의 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아시아인의 독특한 조건이다.'라고 말하며,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의 현실을 전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부촌으로 이사하는 비백인의 대부분이 아시아인 사업가나 의사들이고,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아시아인의 수가 너무 많아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아시아인 입학자의 수를 줄이는 아시아 학생에 대한 역차별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아시아인의 성공담을 확대 보도하는 것이고, 많은 수의 아시아인들은 다른 미국인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하거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의 고통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들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TIME @TIME · 24 Sep

.@cathyparkhong: “I hope that for readers who are just newly discovering Asian American stories that they don’t stop with my book ... I hope that people will read and understand the stories of Americans who have been invisible for so many years” ti.me/3AkKjtq
#TIME100



소외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읽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트윗

지난해 6월에 진행된 예일 리뷰(Yale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저자는 “사소한 감정”에 대해 ‘놀랍도록 지속적인 카타르시스가 없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은 성공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이런 사소한 감정이 겉으로 표출되면 백인들이 생각하는 인종적인 적대감, 질투, 우울함, 호전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경험이 사회에서의 착시현상과 같은, 현실과 비례하지 않을 때 나오는 과잉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인종이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부각해, 인종적 트라우마를 사회가 아닌 개인이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정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종차별과 자본주의가 고착화된 사회에서 이와 같은 트라우마에 갇히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고착화된 현상은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무력한 개인과 지속적인 구조적 불평등’에서 생겨나는 감정과 같은 것이다.

저자는 한국의 민족적 감정인 ‘한’을 미국에 사는 자신의 사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동안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학 양식은 백인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책과 영화는 백인의 의식을 통해 걸러지고, 결과적으로 작가와 예술가 등 다양한 문화 생산자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한다. 게다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쓴 비백인은 무시당한다. 그래서 저자는 유색인종의 경험을 중심으로 쓰려는 시도를 했다. 미국의 인종 다양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유색인종의 인구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인종 문제는 흑백의 이분법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백인이 수적으로 주류에서 비주류로 바뀌기 시작했고, 2050년에는 유색 이민자가 주류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에세이였다. 자신의

에세이에서 멈추지 말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길 바란다는 저자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더 다양한 비주류의 목소리가 서점에 진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학(KPIPA 미국 코디네이터, 미국 파피펄 대표)

미국 아마존의 자회사인 오더블과 킨들 코믹솔로지에서 디지털 오디오북과 코믹북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팀을 이끌었고, 지금은 한국의 도서와 웹툰, 웹소설 등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콘텐츠를 미국 및 해외시장에 번역, 출판하고 있다.

출판
N